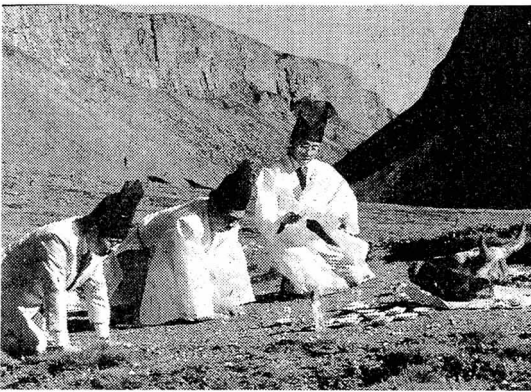


白頭山 天池에서 天祭올려

精神文化院 朴成壽 교수등 7名 中國거처



白頭山 정상에서 天祭를 올리고 있는 朴成壽교수 일행.

延邊에서 사들인 쇠머리등 제물놓고

白頭山 天池에서 天祭가 올려졌다.

지난 8.3. 오전11시 朴成壽교수(정신문화연구원)와 민족운동단체인 사단법인 한배달의 朴善宇회장등 7명의 배달자손이 검은 망건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白頭山 정상에 진설한 祭床앞에 엎드렸다.

『開天 4천3백22년 7월 초이틀 한배달 7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桓因·桓雄·壇君 三神께 삼가 아뢰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날로 발전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겨레가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광복44년이 되도록 남북이 갈려 통일의 날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祝文을 읽는 朴교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天池 위 하늘을 갈랐다.

『바라옵건대 우리 한배달민족이 聖山 白頭山아래 하나되어 자손만대에 이 나라를 물려주게하소서. 삼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올리오니 우리의 소망을 들 어주소서.』

北韓땅 바라보며 三神께 통일기원

朴교수등은 神에 대한 최대의 敬拜인 4拜를 올리고 天池 너머 北韓땅을 바라보았다.

天祭를 올리던 그날 하늘도 그들의 정성에 감응한 듯 일년내내 비바람·눈보라로 至尊함을 지키는 白頭山 靈峰에도 환한 햇살이 내리비쳤다.

朴교수일행이 통일을 기원하는 天祭를 올리기 위해 떠난 것은 지난7월28일. 天祭의 제물인 익히지않은 싱싱한 쇠머리와 오곡등 곡식9가지·복어·과일등을 延邊의 동포들로부터 구입했다. 우리 민족의 제물로 올리는 제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中國을 거쳐서 밖에 白頭山에 올라갈수 없음을 안타까웠다.

白頭山 天祭는 上古시대부터 나라님이 祭主가 되어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三神에게 올려졌다. 『三國史記』와 『高麗史』에는 임금이 즉위했을 때와 매년 10월 상달에 天祭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高句麗의 東盟, 高麗시대의 팔관회도 天祭의 한 형태로 모두 桓因·桓雄·壇君의 三神에게 제사지냈다.

朴교수는 10월이면 白頭山등정이 불가능해져 天祭는 대부분 白頭山을 향한 望祭의 형태로 올려졌고 新羅시대에는 당시로서는 高句麗와의 접경지역인 지금의 春川근교 牛頭山정상에서 天祭가 올려졌다고 설명했다.

白頭山 天祭는 日帝때나 해방이후 한번도 올려지지 못했다.

朴교수는 『白頭山 天池에서 天祭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정성어린 제물을 맛보신 三神께서 우리민족의 통일에의 염원을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8.12·中央日報 14面)